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0호 [루게 제24998호] 주제 104 (2015)년 8월 8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나이지리아 반공화국 대통령,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 네팔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레바논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만마면맹맹대성발전당 총비서,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라니당 총비서,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캄보디아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크리크즈 엘》인민통일공화국중앙위원회 위원장, 튀르키예 조국당 위원장, 도이칠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인민혁명군 위원장, 로씨야자주민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벨라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히-모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에스빠나민주노동당 총비서, 세네갈사회당 총비서, 에리트리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카공화국 총비서, 메히코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메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자유국당 전국위원장, 자유로표동맹을 위한 페루인민독립운동 위원장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또한 몽골인민혁명당 비서, 아랍사회부총당 부총비서, 이란이슬람교혁명당 부총비서, 전연맹볼레비키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슬로벤스프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리트리아사회주의당 부위원장,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조성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전략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네덜, 레바논, 말레이시아, 만다, 몽골, 방글라데시, 수리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파키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일본,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칠란드, 벨라리아, 벨라루스, 스위스,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코, 체코, 프랑스, 핀란드, 폴스카, 영국, 오스트리아, 우

크라이나, 이슬란드, 이탈리아, 기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베넌, 세네갈, 민주공, 튀니지, 앙골라, 우간다, 에리트, 에티오피아, 메히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카나다,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조, 주체사상연구소, 조선로동당 지지 및 친선단체대표들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어왔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히 빛날 만년제대로라고 전문과 편지들은 강조하였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은 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디아인민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문을 보내어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칠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올렸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양로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 1위원장께서는 양로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민족상이 살아나게, 민족의 향취가 짙게 건설했다고, 볼수록 멋있다고 탄복을 표시하시었다. 그리고서는 년로자들을 늘 환영하고 잘 돌봐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아르헨티나공산당 인터넷 국제문제블로그 《데 포다스 빠르메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기념사료를 찾으신 소식을, 몽골신문 《어디든 소년》,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칠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경기대회-2015》를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도이칠란드, 몽골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7월 25일부터 29

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기념사료를 찾으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월남의 인터넷신문 《뎐머이》, 인터넷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 미국의 UPI통신, 튀르키예신문 《하베르메르》, 베네수엘라의 텔레부르TV방송,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칠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을 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민주공, 도이칠란드, 캄보디아, 월남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의 UPI통신,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칠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기념사료를 찾으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월남의 인터넷신문 《뎐머이》, 인터넷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 미국의 UPI통신, 튀르키예신문 《하베르메르》, 베네수엘라의 텔레부르TV방송,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칠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을 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민주공, 도이칠란드, 캄보디아, 월남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집바브웨 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하 라 레
집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집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창건 52돐에 즈음하여 귀 당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 인사를 보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집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창건 52돐에 즈음하여 귀 당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 인사를 보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집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창건 52돐에 즈음하여 귀 당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 인사를 보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4(2015)년 8월 7일 평양

우리 당의 인민사랑, 년로자보호정책이 빛나게 구현된 희한한 건축물 평양양로원 준공식 진행, 보양생들 새 집으로 이사



우리 당의 혁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의 곳곳에 사회주의문명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편이이 일떠서고있는 속에 년로자들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수도 평양에 훌륭히 꾸려졌다.
평양양로원은 언제나 인민을 위한 시책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에게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려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구상에 의해 솟아난 사랑의 창조물이다.
충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평양음악원, 체육원과 함께 평양양로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이 지구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이 집대성된 곳으로 훌륭히 전변되게 되었다.
민족의 향취를 풍기는 학각자봉의 조선식건축물로 특색있게 솟아난 평양양로원에는 침실과 식사실, 도서

실, 운동실, 치료실, 내정을 비롯하여 로인들의 건강장수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년로자들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일떠섬 평양양로원 준공식이 7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식장에는 년로자들을 혁명전선배, 옷사람으로 내세워주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새차게 끓어넘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따라배우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년로자보호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정영수로동상, 김수길 평양시당위원장, 최영희,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평양양로원 일꾼들, 보양생들, 종업원들, 시안의 당, 정전기반, 연관부문 일꾼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북반은 인민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오수용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우리 당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훌륭히 일떠섬 평양양로원의 준공은



사회주의대개정의 경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양양로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우리 당이 일떠섬은 인민 사랑의 결정체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전국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 1948년 5월 승호군 만리리에 자리잡고있는 양로원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들의 생활의 구성구실을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국가가 로인들을 돌봐주는 뜨거운 사랑의 새 역사를 펼쳐놓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에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내세우는 혁명적도덕기풍을 세워주시고 우리 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셨다.

연설자는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나라도 나라도 년로자들이 있지만 나이많은 로인들을 위해 이처럼 공평같은 양로원을 일떠섬을 높여 보려는 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 만 있을수 있는 경이적인 현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평양양로원은 건설에서 주체성, 민족성을 살리며 민족건축형식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당의 의도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적건축물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년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장수에 필요한 온갖 시설들을 그흔히 갖추고 모든 요소요소가 보양생들의 신체적, 연령심리특성에 맞게 훌륭히 꾸려졌으며 비만복적이면서도 독특한 내외부시공과 특색있는 내정의 형성, 건물을 편견하는 외관과 야외 놀이시설, 원림특화에 이르기까지 당의

의도가 철저히 구현된 멋쟁이건축물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때때의 팔바람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공사를 립체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친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평양양로원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전설을 전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오르는 기적도 창조될수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양로원보양생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불러 당의 인민적시책이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 놓으신 년로자보호정책을 일관하게 철저히 관철하여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낼수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현시켜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평양양로원의 종업원들이 당의 은정이 깃들여있는 양로원의 관리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평양양로원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전설을 전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오르는 기적도 창조될수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기념비적창조물을 가장 훌륭히 일떠섬은 군인건설자들의 결사판단의 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뜻깊은 울레를 조국청사에 깊이 빛남 혁명적대강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적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백두산대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 주체사상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 사회주의협동밭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평양지하철도개통식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2(1973)년 9월



대성산유원지건설전망모형사관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6(1977)년 2월



인민대학습당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1(1982)년 4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6(1987)년 11월



고려병원건설사관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1(198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에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5(1986)년 11월



릉라도에서 나무를 심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54(1965)년 4월



만경대물놀이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8월



서해갑문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9월

우리 당의 인민사랑, 근로자보호정책이 빛나게 구현된 희한한 건축물

1 면에서 계속

연설자는 모두 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붙어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선군조선의 불멸의 기상과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며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세월이아 가보라지》 노래주악이 울리는 속에 보양생대표들이 준공례 프를 끊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근로자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하게 일떠선 평양양로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이날 평양양로원 보양생들은 새 집으로 이사하였다. 행복의 새 보금자리로 들어서는 그들의 가슴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첫머들었으며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 양로원은 명절처럼 흥성이

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양로원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사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궁궐같은 새 집에 들어서는 보양생들은 평범한 자기들을 혁명선배,

웃사람으로 내세워주며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당의 은덕이 너무 고마와 흐르는 눈물을 겹겹지 못하였다. 온 세상이 부러움에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준 어머니당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 로동당만세소리가 그들의 심장속깊이에서 뜨겁게 울려나왔다. 볼수록 희한한 멋있는건축물을 돌아보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회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들을 적극 보살펴주는 미풍이

사회적이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장으로 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느끼며 당의 근로자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일 바구령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교육일군대표단과 하재봉, 박정순학부장들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직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

적민주교육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출판보도부문 기자, 언론인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출판보도부문 기자, 언론인들이 1일부터 7일까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그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보천보혁명전적지, 청봉속영지, 삼지연모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일영의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거리리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보천보혁명전적지에 도착한 답사자들은 보천보전투취적지와 경술관주재소, 번사무소 등을 돌아보면서 보천보의 발하늘에 승리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어 일제침략자들을 전멸케 하고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사활을 안겨 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비범한 군사전법과 지략을 깊이 체득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혁명전룡을 확고히 고수하고 빛내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보서리평물리와 중흥동관명제비, 리명수혁명사적지를 돌아보았다.

청봉, 건창, 배개봉속영지들에 굳건히 서있는 구호나무들의 글밭들에서 그들은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났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답사길을 달려 삼지연에 도착한 그들은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이며 혁명전룡요양의 거점인 삼지연대기념비의 조각군상들을 돌아보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다짐없는 호모모독과 불굴의 투쟁모습, 열렬한 조국애를 깊이 체득하였다. 오늘날도 절세위인의 명활무쌍한 군사적지략과 무비의 단련과 배짱을 전설처럼 전하고 있는 갑부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하여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참관한 그들은 행군을 다그쳐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민족의 넓이 깃들어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어있는 조종의 산에서 그들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으면서 백두산을 승리의 상징으로,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로 마

음속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업무를 끝까지 완성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곁길에도 그리던 백두산일영고향집을 찾은 답사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평명성으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보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답사기간 그들은 항일백두산참가자들의 화상기발표모임과 시상승모임, 체육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도 진행하였다. 전체 답사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심장에 쏘아박고 당의 선군명도를 혁명의 빛대로 충직하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축하를 받으라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딸이여!

제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국향선수 귀국, 기자회견 진행



에 영예의 금메달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체육강국의 명마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김국향선수의 쾌승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애국충정의 고귀한 선물로서 당의 전투적조소라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팔없이 빛내어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7일 제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었다. 세계학구너황, 마라손너황, 유술너황을 낳은 민족의 긍지를 더욱 빛내이며 물에뛰어들기종목에서 조선의 이름을 떨치고 조국과 인민의 축복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체육인칭호를 수여받은 김국향선수를 비롯한 우리 체육인들을 기다리는 수도 평양의 거리는 시민들의 환영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용내각부총리,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영태체육상, 리종무 조선인민군장령, 관계부문 일군들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국향선수와 선수, 감독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가족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김국향, 김은향, 송

남향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김국향선수와 선수, 감독들을 태운 배스가 비행장을 출발하자 《장하다!》, 《환영!》 등의 제침이 울려 퍼지고 축하의 꽃목걸이 새차게 걸매되었다.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나온 순안구역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16살의 어린 나이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기울 높이 날린 김국향선수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재능의 싹을 찾아 소중히 키워주시어 세계무대에까지 내세워주시고 오늘도 또다시 이렇듯 영광의 단상에 높이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가슴에 안겨와 김국향선수는 뜻깊은 격정을 감지 못하였다.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려도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겠다는 오직 하나의 신념과 배짱을 안고 우승한 미덥고 자랑스러운 김국향선수를 바라보는 군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더욱 밝은 체육강국의 미래를 확신하였다. 배스가 편포동을 지나 수도의 중심거리에서, 거리들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손을 흔들며 축하해주었다.

선수, 감독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태양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축복해주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지어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가슴깊이 새기고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 충정의 맹세가 김국향선수를 비롯한 선수, 감독들의 심장마다에 차민었다. 선수, 감독들을 태운 배스가 개신문에 이르자 경배한 위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수천명의 근로자들과 체육인들, 청년학생들이 열정적인 환영으로 그들을 맞이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려라!》, 《제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우승한 김국향선수를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구호관들이 거리에 세워져있었다. 서로서로 키돋음을 하면서 기쁨에 넘쳐 마중하는 사람들의 열광마다에서 김국향선수는 아직은 첫걸음을 불과한 나이인 체육인을 개신장관마냥 떠받들

어주는 어머니당과 조국의 사랑과 기대를 걸감하며 눈시울을 적시었다. 이날 김일성경기장에서 제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돌아온 김국향선수의와 기자회견이 있었다. 평양시내 출판보도부문 기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가슴깊이 새기고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 충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무대에서 처음으로 우승할 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경기마다에서 불굴의 정진력을 발휘하며 우리 식의 경기전법을 적극 활용하였기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국향선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심장에 새기고 앞으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훈련열풍을 드세차게 일으켜 금메달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웅적기상을 세계에 떨치는데 적극 기여할 큰 결의를 다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를

다음주에 여러 종류의 체육경기가 진행된다. 일요일(9일) 오전에 해물체육단, 수양산체육단, 와우도체육단, 판도봉체육단, 동림평산기계공작체육단의 여자선수들이 참가하는 지상호케이점열경기가 용라인민체육공원지상호케이장에서 있게 된다. 이날 평양체육관에서는 평양체육단과 통산산체육단

사이의 남자권투 1급, 청년급대항경기가 벌어진다. 한편 4. 25체육단, 평양체육단, 기관차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제조업경기장 경준거리 정경기관에서, 상업성체육단 선수들의 코에제조점열경기가 평양체육관에서 각각 진행되게 된다. 해물컵 남자 1급 축구경기일은 다음과 같다. 【조선중앙통신】

- 9일 월 미도:쇄 불
- 장 수봉:소백 수
- 10일 리명수:봉 화 산
- 11일 정 양:초 병
- 암 록 강:진 봉
- 12일 경공업성:4. 25
- 13일 기 관 차:소 백 수
- 월 미 도:봉 화 산
- 14일 장 수 봉:리 명 수
- 15일 호 향 산:선 봉
- 평 양:4. 25



